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의 영인·번역·해제 작업의 흐름과 경향

김 은 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

〈차 례〉

1. 머리말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의 영인·번역의 흐름
3. 연구동향에 따른 주제별 영인·번역 현황과 해제 경향
4. 맺음말 : 제언과 전망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자료 가운데 한국음악학 관련 자료가 영인·번역된 현황을 정리하고, 해제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음악학 연구 자료의 영인과 번역을 통해 적극적인 사료 공유를 시도하며 연구의 저변을 확대시켜 왔는데 이는 연구기초자료의 확보 측면에서 한국음악학 연구와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음악학계의 영인·번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행주체와 대상에 따라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시기(1933~1959)는 자료 발굴기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들이 영인되었으며, 인접학문 분야에서도 기초사료의 영인이 이루어졌다. 제 2시기(1960~1979)는 음악자료의 기틀마련기로 고악보 중심의 총서 발간이 이루어졌고, 제 3시기(1980~1999)는 자료의 정착발전기로 이 사업을 이어받아 국립국악원에서 80년대에는 영인본 총서를, 90년대에는 번역본 총서를 발간해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한국음악학 자료들이 보급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자료가 양적·질적으로 심화되고 연구도 진전되었다. 제 4시기(2000~현재)는 성과물 축적을 통한 학계간 연구기로 여러 학술단체의 번역총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궤분야 연구가 심화되었고, 비음악학 분야 자료가 보다 중요해졌다.

영인·번역서에 딸린 해제는 연구동향과 자료 특성에 따라 의례, 악서, 악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료의 소개와 연구 소개를 제시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음악학의 연구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해제 자체가 연구성과가 되거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해주기도 하였으며, 연향관련 의례가 가장 활발하게 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아직 영인되지 않은 의례, 이미 간행되었으나 품질이 낮거나 판본이 다른 자료, 고악보의 문자정보 등 자료의 사각지대를 잘 살펴 자료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로 출판과 색인의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제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인, 번역, 해제, 의례, 악서, 고악보

1. 머리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음악학 관련 자료들은 국가 전례와 그에 수반된 음악의 면면들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어 연구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예악을 형정(刑政)보다 우선시하는 통치이념으로 국가 의식은 물론, 지배층의 일상에서도 음악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가 전례를 기록해 놓은 의례는 음악의 실재를 보다 근접하게 파악하도록 해주고, 각종 악서는 국가적 뒷받침을 받았던 음악 이념과 논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또한 조선시대 민간 음악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개인문집과 악보가 있어 지배층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음악의 향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점은 일찍부터 주목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연구물들이 발표된바 있다.

그간 한국음악학계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 가운데 음악사 연구의 골격을 구성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영인과 해제, 번역을 통해 적극적인 사료 공유를 시도하며 연구의 저변을 확대시켜 왔다. 그 결과 반복적으로 참고가 되는 주요 사료들의 내역이 생겼으며, 한국음악학 자료의 영인·번역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없었고 <한국음악학자료총서>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이용에 산발적인 수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규장각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의 영인·번역본을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해제 내용과 연구와의 관련성을 논하여 이를 통하여 기초자료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의 영인·번역의 흐름

한국음악학 연구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영인본 출간의 노력은 해방 전부터 시작되었고, 해방 후 얼마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와 국악학회가 잠시 주도하다가 국립국악원의 <한국음악학자료총서> 발간이 자료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1) 한국음악학 자료의 발굴·탐색기(1933~1959)

한국음악학 자료의 영인·해제·번역의 역사는 1933년 고전간행회의 『악학궤범』 영인으로 시작된다. 초기에는 중요 자료를 보급하는 시기로 『악금신보』, 『시용향악보』¹⁾, 『가곡원류』 등이 개별적으로 영인되었다. 국문학, 역사학 분야에서도 기초 자료들이 영인·번역되었는데 한국음악사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해방이 되자 국문학계에서는 『청구영언』, 『가곡원류』 등 몇몇 가사집이 번역되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조선 세종 때 편찬된 『고려사』의 전문번역은 모두 북한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²⁾ 그 안에는 각각 『악지(樂志)』가 포함되어 있다. 또 50년대 이르러 『고려사절요』가 출간되었다.³⁾ 한편 『악학궤범』의 번역본 출간은 『삼국사기』, 『고려사』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 시기 영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였던 것에 비하면 북한의 『악학궤범』과 『삼국사기』

1) 이 자료는 (재)아단문고 소장이나 1954년 영인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 편, 『삼국사기』 上·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8-1959);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편, 『고려사』(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1966);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편, 『북역고려사』(아름출판사, 2008); 『역주 고려사』(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1987).

3) 김종서 편, 『고려사절요』(명문당, 1959); 김종서 편, 『고려사절요』(고전간행회, 1960).

의 번역은 꽤 이른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주목되는 간행 주체로는 『악학궤범』과 『고려사절요』를 영인한 고전 간행회와 『양금신보』와 『청구영언』을 간행한 통문관을 들 수 있으며 주요 편찬 자로는 함화진(1884~1949년)이 있다.

〈표 1〉 1960년 이전의 음악사료 영인·번역서 간행

『도서명』	총서명	간행처	비고	출판년도
『악학궤범』		고전간행회		1933
『청구영언』	신문고 1	통문관	주왕산 교정 이명미 서	1946
『가곡원류』		조선문화관	함화진 편	1946
『시용향약보』		연희대학교		1954
『(북역)악학궤범』		평양: 국립출판사	렴정권 역주	1956
『가곡원류』	국어국문학자료 총서 2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57
『(진본)청구영언』		신생문화사	정주동·유창식 공교주	1957
『양금신보』		통문관	함화진 편	1959
『삼국사기』上·下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고전연구실		1958-1959
『고려사절요』		명문당	김종서 편	1959

2) 한국음악학 자료의 기틀마련기(1960~1979)

한국음악사 연구를 위한 집단적인 기초 작업은 1960년대 초부터 1979년까지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고악보를 등사 혹은 영인하여 〈한국음악자료〉 총서가 발간되면서 시작되었다. 총서의 일련번호나 간행처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였으나 처음 발간된 총서로써 국악학자들의 연구에 활발히 이용됨은 물론 고악보의 유통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일구어내는 토대가 되었다.

〈표 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한국국악학회 간행 〈한국음악자료총서〉 중
규장각 소장 자료 목록

도서명	총서명	간행처	출판년도
『금합자보』	한국음악자료총서 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	1974
『현금동문류기』	한국음악자료총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	1976
『한금신보』	한국음악자료총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	1977
『양금신보·유예지』	한국음악자료총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	1979

또한 인접학문 분야에서 음악사 연구기반을 위한 주요한 역사사와 전례서가 간행되는 시기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찍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되었고⁴⁾ 민족문화추진위원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번역본을 간행하였다. 『춘관통고』는 1970년대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인하였다.⁵⁾ 고종대에 『오례편고』의 간행이 실현되지 않아 사실상 황제국이 되기 전 조선의 마지막 국가전례서⁶⁾로 남게 된 정조대의 『춘관통고』는 기존 전례서와 비교하여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음악사 및 전례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전적이다⁷⁾.

〈표 3〉 규장각 소장 한국음악학 관련 전례서 영인·번역 현황

도서명	간행처	출판년도	규장각 도서번호
『춘관통고』上·中·下	성균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1977	奎12272
『국조오례의』	경문사	1979	奎1136, 奎1880, 奎2275 ⁸⁾
『국조오례의』1-5	법제처	1981-1982	

4) 국사편찬위원회 편, 『조선왕조실록』 1-40(국사편찬위원회, 1968~1971).

5) 유의양 편저, 『춘관통고』上·中·下(성균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1977).

한국학 발전을 위해 고전을 발굴하여 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던 『춘관통고』는 장서각 2종,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각 1종의 도서가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본으로 영인되었다.

6) 대한제국기를 포함하면 마지막 국가전례서는 『대한예전』이며, 원본은 장서각 소장이다. 2018년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대한제국사연구소, 지음, 임민혁·성영애·박지윤 옮김, 『국역대한예전』上·中·下(민속원, 2018).

7) 이 책의 해제에서는 『증보문헌비고』, 『고종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편찬자가 ‘유의양(柳義養, 1718년~?)’임을 규명해냈고 편찬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역사학자에 의한 해제이므로 음악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제로 연행된 의전의 항목별, 사례별 분량이 방대하고, 각 사례별 내용이 『대한예전』보다 많으며, 조선후기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송지원은 『춘관통고』를 정조와 그 이전시대의 국가의례 정비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국가전례서로 보고, 조선의 국가전례의 특징과 역사적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드러내며 부록을 통해 『춘관통고』에 수록된 오례관련 목록을 총괄해주었다.

3) 한국음악학 자료의 정착·발전기(1980~1999)

1980년대부터는 국립국악원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의 간행사업을 이어받아 <한국음악학자료총서>의 영인본 발간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음악학 자료가 널리 보급되어 현재까지도 자료의 근간이 되었다. 고악보, 악서, 의궤가 주 대상이 되었으며, 영인을 위한 새로운 자료 확보에 힘을 쏟았고 해제가 연구의 한 축을 이루어졌다. 간행을 거듭할수록 영인본의 상태는 갈끔해지고 해제는 상세해졌다.

또한 1991년부터는 사료의 번역을 위주로 한 <한국음악학학술총서>를 간행하여 한국음악학 자료의 심화·발전 양상을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음악기사총색인』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93권 888책의 방대한 분량에서 음악기사를 추려왔던 송방송의 학자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증보문헌비고』⁹⁾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본(1980)은 「악고」가 빠져있고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해보았을 때 오류가 많아 원사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 번역되었다. 한편 기틀을 마련해오던 『국조오례의』¹⁰⁾는 법제처의 번역본으로 완간하였다.¹¹⁾

8) 법제처의 『국조오례의』에는 『국조속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국조속오례의』(1744): 奎1479, 奎1045, 奎1500, 奎2805, 奎3555, 奎3687, 奎7875의 1, 2, 奎26620, 奎26684./ 『국조속오례의보』(1751): 奎1270, 奎2948, 奎3181, 奎3503.

9) 상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까지의 문물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영조의 명으로 홍봉한 등이 1769년 편찬한 『문헌비고』 13고 100권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체제가 안 맞고 오류가 많아 정조대에 이만운이 정정·보충한 2차 편찬본이 나왔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1903년부터 5년간 대폭 개정하여 16고 250권이 탄생하였다. 『국역증보문헌비고』(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이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2000년까지 250권의 『증보문헌비고』를 완역해 37권으로 출간하였다.

10) 1474년(성종 5)에 강희맹, 신숙주(申叔舟), 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예전이다. 전래의 고제와 증설(衆說)을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예의 기본 원칙과 시행절차를 집대성하였다.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의서례』가 찬정된 후 270여년이 지난 영조 20년(1744)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첨삭되어야 할 부분을 『국조속오례의』, 『국조속오례의서례』로 편찬하도록 하였는데, 1751년 신만(申晩)으로 하여금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국조속오례의보』와 『국조속오례의보서례』를 찬정하도록 하였다.

11) 1981~1982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국조오례의』는 후에 개정한 것까지 모두 5권의 책 안에 담았고, 권3을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원문서비스가 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에서도 『춘관통고』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원문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4〉 규장각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 중 〈한국음악학자료총서〉 목록(1980~1999)

* 2권 이상으로 된 도서명은 해제자별로 재배치 하였다.

도서명	총서 번호	출판 년도	비고
『(무자)진작의궤』·『(기축)진찬의궤』	3	1980	장사훈 해제
『(무신)진찬의궤』	6	1981	장사훈 해제
『증보고금보』·『휘금가곡보』·『죽취금보』·『양금보(일사금보)』· 『원객유운』·『흑홍금보』	7	1981	장사훈 해제
『시악화성』	12	1983	장사훈 해제
『진연의궤』·『자경전진작정례의궤』	13	1983	장사훈 해제
『협률대성』 『양금신보』 『구라철사금자보』	14	1984	이동복 해제 이해구 해제 장사훈 해제
『현금동문유기』·『유예지』	15	1984	장사훈 해제
『세종실록악보』·『세조실록악보』	20	1986	성경린 해제
『악원고사』·『악통』·『난계유고』·『악서고존』	21	1986	장사훈 해제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사직악기조 성청의궤』·『신축진찬의궤』	23	1987	장사훈 해제
『신축 진연의궤』	24	1987	장사훈 해제
『영조판 악학궤범』	26	1988	성경린 해제
『삼국사기 악지』 『고려사 악지』 『증보문헌비고 악고』	27	1988	송방송 해제 김영운 해제 장사훈 해제
『종묘의궤』	29	1990	송혜진 해제
『갑자진찬의궤』·『을유수작의궤』	30	1992	송혜진 해제
『금가』	31	1995	최현 해제

4) 성과물 축적을 통한 학제간 연구기(2000~현재)

1990년대 전후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음악 자료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료에서 음악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비음악학 분야에서 간행된 영인·번역본이 한국음악학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이 시기는 영인보다 번역 위주였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자료가 갱신·심화되었다. 국악원뿐 아니라 여러 학술 기관들도 학술자료를 구축해가고 있었으며, 2000년 이후 각 기관에서 연향의례 번역서를 두드러지게 간행하였다.

(1) 비음악학 분야

규장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국학고전연구분야 지원으로 1990년대부터 <규장각자료총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 총서는 인문학 발전의 저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음악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들은 조선시대 음악사 연구를 위한 풍성한 자료기반을 만들어놓아 학제간 연구를 촉진시켰다.

〈표 5〉 규장각의 〈규장각자료총서〉 의례편 중 음악관련 영인·번역본

도서명	총서명	출판 년도	규장각 도서번호
『원행을묘정리의례』上·中·下	규장각자료총서:의례편	1994	奎4532
『자경전진작정례의례』	규장각자료총서:의례편	1996	奎14535, 奎14362
『종묘의례』上·下	규장각자료총서:의례편	1997	奎14220
『사직서의례』	규장각자료총서:의례편	1997	奎14229
『대사례의례』	규장각자료총서:의례편	2001	奎14941
『고종대례의례』	규장각자료총서:의례편	2001	奎13488
『경모궁악기조성청의례』	규장각자료총서:의례편	2004	奎14265

(2) 음악학 분야

1991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음악학학술총서>로 음악사 연구가 진전되었다. 『증보문헌비고악고』, 『시악화성』도 <한국음악학학술총서>로 심화되었고, 특히

2000년 『신역악학궤범』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 또 이미 영인된 악기조성청의 궤 중 아직 번역이 안 된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도 모두 학술총서에 실렸다.

〈표 6〉 규장각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 중 〈한국음악학학술총서〉 목록

도서명	총서 번호	출판 년도	비고
『조선왕조실록 음악기사 총색인』	1	1991	송방송 편
『역주난계선생유고』	2	1993	권오성·김세종 번역
『증보문헌비고 악고』 上·下	3	1994	김종수 번역
『역주시악화성』	4	1996	김종수 번역
『신역악학궤범』	5	2000	이혜구 번역
『역주악원고사』	6	2006	윤호진 번역
『역주사직악기조성청의궤』	7	2008	김영희 번역
『역주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8	2009	서인화 번역

국립국악원에서 간행한 〈한국음악학자료총서〉는 병풍, 연회도, 풍속도 등 도상자료로 대상이 확장되어 글과 악보로 이해하였던 한국음악학의 풍성한 이해와 연구를 가능케 한다. 이 경우 해제 대신 논고를 담아 도상자료의 시대적 맥락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규장각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 중 〈한국음악학자료총서〉 목록(2000~)

도서명	총서 번호	출판 년도	비고
『조선시대진연진찬진하병풍』	35	2000	서인화 박정혜 주디 반자일 편저
『조선시대 연회도』	36	2001	윤진영 서인화 논고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	37	2003	서인화 진준현 논고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I	38	2003	정병모 논고

2000년 이후로는 대학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여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영남대에서 출발한 한국음악사료강독회에서 『영조갑자진연의궤』, 『숙종기해진연의궤』, 『순조기축진찬의궤』 1-3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사료강독

회에서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고종신축진연의궤』, 『헌종무신진찬의궤』, 『고종대례의궤』 등이 세세한 해제와 함께 영인·번역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궁중연향을 음악뿐 아니라 무용사 측면으로도 접근하여 연구를 진척시켰다.

3. 연구동향에 따른 주제별 영인·번역 현황과 해제 경향

규장각 소장 한국음악학 자료 중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음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의궤, 악서, 악보로 나누어 영인·번역 현황과 연구자 및 연구주체의 변화에 따른 해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궤

전례서가 의례의 격식과 원칙을 보여준다면 의궤는 『국조오례의』나 『악학궤범』이 담지 못하는 실제 의식의 연행 현장과 그 설행 전후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음악관련 사료로 볼 수 있는 의궤는 궁중연향 의궤, 악기제작 의궤, 제례/빈례/책봉·책례/존호준숭상호의궤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궁중 연향 관련 의궤, 악기제작 관련 의궤, 그밖에 의례 의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향 의궤

조선시대 궁중연향 관련 의궤¹²⁾ 총 20종 가운데 17종이 규장각 소장이고 그 중 3건은 규장각 유일본이다. 이처럼 규장각 소장 의궤는 종류도 다양하고 자료의 특성상 영인과 해제 작업은 막중하다.¹³⁾ 해제에서는 간략한 서지정보와 의궤

12) 규장각 소장본 17종 외에 궁중 연향관련의궤는 『풍정도감의궤』(파리국립도서관 2413), 『기사진표리의궤』(영국대영박물관), 『해경궁진찬소의궤』(장서각)가 있다.

13) 규장각을 대표할만한 3개 분야의 자료로 의궤, 문집, 왕실자료가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

의 종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편찬배경, 목차에 따른 구성, 자료적 가치 등 자료를 활용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을 일러준다. 해제가 거듭될수록 연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심도 있는 해제에 이르렀다. 1980년부터 시작된 의궤 영인본의 해제는 한국음악학 자료로서 의궤를 발견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며 눈여겨보아야 할 항목을 언급하는데 그친 반면, 1990년 이후로는 그간 발간된 영인 자료 및 의궤 관련 연구성과와 맞물려 깊이 있는 해제를 쓸 수 있었다.

처음에 『(무자)진찬의궤』와 『(기축)진찬의궤』는 국악원에서 합본으로 영인되었다. 해제(장사훈)에서 순조 때의 의궤가 중요한 이유와 『악학궤범』보다 복식이 다양하고 상세하며 춤추는 그림이 있어 보완되는 자료임을 설명하였다. 이 해제에서 진연, 진찬, 진작, 수작의 뜻이 서로 비슷하다고 한 것과 달리, <국역총서> 해제(김중수)에서는 진풍정, 진연, 진찬, 진작의 용어를 개괄하며 진찬의 의미가 숙종대와 달리 영조대에는 소략한 곡연(曲宴)의 의미로 쓰였다고 하였다.

『(기해)진연의궤』의 첫 해제는 설행배경과 권1의 내용 요약에 그쳤으나 규장각총서에서는 국악원(奎14358)과 다른 판본(奎14357)을 영인하였는데 다른 판본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궤체제가 달라 영본(零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에 남아있는 의궤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국역기해진연의궤』에서는 공연사료로서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숙종실록 소재 음악기사와 비교검토하였고, 관청 공문서를 점검할 수 있는 행정제도사적 가치와 복식사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신축)진찬의궤』의 해제는 정재 악장조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이하 21종의 정재가 각종 의궤와 비교·정리되어야 하며, 정재 절차에서 임시로 붙인 가명(假名)으로 인해 곡명이 혼동되므로 원명(原名)을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연주 및 정재를 담당하였던 각차비(各差備) 중 1930년대 전후 이왕직악부에서 지도하던 분들이 언급되었음을 밝혔다. 『(신축)진연의궤』는 국립국악원 총서를 원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규장각 소장본을 직접 참고하였는데 이처럼 번

초학문육성 국학고전연구' 지원으로 2002년부터 정리사업을 실시하였다.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역서 출간시 이전의 영인본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갑자)진연의궤』 국립국악원 편에서는 헛갈리는 의궤 제목에 대해 『영조조 갑자진연의궤』로 부르려는 시도가 있었다. 해제에서는 『영조실록』 기사를 통해 진연의 시말과 음악, 춤 내용을 기록하였고, 〈하황은〉은 영조가 직접 악장을 짓고 상연을 명한 경위를 밝혔다. 연례악에서 향악곡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며, 악기편성은 가야금과 현금이 제외된 것을 빼면 숙종대와 같다. 한편 〈국역총서〉에서는 奎14359(1책)과 奎14360(2책)이 동일하나 전자가 초고(草稿)본이거나 보관용일 것으로 보았다. 양란이후 영조대의 음악에 대한 음악사학적 가치, 음악과 무용의 공연예술사적 가치와 악공·관현맹인 및 선상여기의 복식사적 가치, 조선 후기 중앙행정사적 가치 등 공연예술사 연구의 초석마련에 목적을 두고 해제하였다.

『(을유)수작의궤(受爵儀軌)』에서는 『영조실록』과 『춘관통고』를 인용해 그 전말을 파악하고, 수작례에 사용한 등가와 헌가, 문무무에 대한 기록을 세종조와 비교하여 악기편성이 줄긴 하였으나 세종 때 회례연에 쓰인 이악이 늦어도 성종 때에는 폐지되었다고 하는 기존 설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됨을 밝혔다. 『자경전 진작정례의궤』는 국악원총서에서 한문본(奎 14536)을, 1996년 규장각자료총서에서 한문본(奎 14535)과 한글본(古 4256.5-2)을 함께 영인하였다. 국악원 해제에서는 연향 목적에 대해 명확하진 않다고 하였으나, 규장각의 해제에서 이 의궤가 1827년(순조 27) 효명세자(1809~1830)가 대리청정 후 부왕 순조 내외에게 존호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진작례를 행하였으며 이후 왕실 연향의궤의 체제가 이와 비슷한 체제를 지니며 내용이 풍부해지는 양상을 보임을 알려주었다.

『(무신)진찬의궤』의 국립국악원 해제에서는 음악·정제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였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료강독회의 해제는 1848년(헌종 14) 3월 창경궁 통명전에서 순원왕후(1789~1857)의 육순을 경축하여 배운 연향에 대한 시대와 인물에 대한 배경을 서술하고 의궤 체제를 설명하였다.

고종대의 의궤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료강독회에서 『신축진연의궤』를, 고전번역원에서 〈조선왕조의궤충간〉으로 임인년 두 의궤를 번역하였으며, 『(고종정해)진찬의궤』가 2008년 보고서에서 영인·번역된 이후 2009년 한국문화재단

에서 조대비 팔순잔치 재현행사를 위하여 영인·번역되는 등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종수, 송지원의 규장각 해제집의 논문과 송방송의 연향 관련 의궤의 해제 및 색인집 출간으로 음악관련 의궤의 해제 작업은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표 8〉 규장각 소장 궁중연향 의궤의 영인·번역 현황

서명/ 도서번호	간행 년도	총서명	간행처, 출판년도	해제 번역	규장각 도서번호
『(기해)진연의궤』 奎14357, 奎14358	1719년 (숙종45)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3	국악원, 1983	장사훈	奎14358
		규장각학술총서	규장각, 2003	김종수	奎14357
		한국음악사료연구회국역총서 4	민속원, 2001	송방송	奎14358
『(갑자)진연의궤』 奎14359, 奎14360	1744년 (영조20)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0	국악원, 1992	송혜진	奎14360
		한국음악사료연구회국역총서 1	민속원, 1998	송방송	奎14360
		민속원 아르케박스 78 『영조의 기로서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민속원, 2017	김종수	奎14359
『(을유)수작의궤』 奎14361	1765 (영조41)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0	국악원, 1992	송혜진	奎14361
『(을묘)정리의궤』 奎14532, 藏2-2897	1795 (정조19)	『원행을묘정리의궤』	수원시, 1996	-	奎14532
		규장각학술총서	규장각, 1994	송지원	奎14532
『(정해)진작의궤』 (자경전진작 정례의궤)	1827 (순조27)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3	국악원, 1983	장사훈	奎14536
		규장각학술총서	규장각, 1996	오수영	奎14535 古4256.5-2
『(무자)진작의궤』 ¹⁴⁾	1828 (순조28)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	국악원, 1980	장사훈	奎14364
		세계민족무용연구소학술총서 3	한국예술종합 대학교, 2006	이의강	奎14364
『(기축)진찬의궤』	1829년 (순조29)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	국악원, 1980	장사훈	奎14367
		한국음악사료연구회국역총서 6-8	민속원, 2007	김종수	奎14370
『(무신)진찬의궤』 ¹⁵⁾	1848년 (현종14)	한국공연예술사료번역총서 6-8	한국예술종합 대학교, 2004-2006	김종수	奎14372
		한국음악학자료총서 6	국악원, 1989	장사훈	奎14372
『(무신)진찬의궤』 奎 14374	1868년 (고종5)				
『(계유)진작의궤』 奎14375, 藏2-2861	1873년 (고종10)				
『(정축)진찬의궤』 ¹⁶⁾	1877년 (고종14)				

서명/ 도서번호	간행 년도	총서명	간행처, 출판년도	해제 번역	규장각 도서번호
『(정해)진찬의궤』 ¹⁷⁾	1887년 (고종24)	『(국역)고종정해진찬의궤』	보고사, 2008	인남순	奎14405
		『고종정해년진찬의궤:조대비 만경전팔순잔치』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9		奎14405
『(임진)진찬의궤』 ¹⁸⁾	1892년 (고종29)				
『(신축)진찬의궤』 奎14446, 藏2-2881	1901.5. (광무5)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3	국악원, 1987	장사훈	奎14446
『(신축)진연의궤』 奎14464, 藏2-2868	1901.7. (광무5)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4	국악원, 1987	장사훈	奎14464
		한국공연예술사료번역총서 2-4	한국예술중 합학교, 2000-2002	이의강 기태완	奎14464~奎 14480
『(임인)진연의궤』 ¹⁹⁾	1902.4. (광무6)	조선왕조의궤총간 3 『(국역)진연의궤』 1	한국고전번 역원, 2005	박소동	
『(임인)진연의궤』 ²⁰⁾	1902.11. (광무6)	조선왕조의궤총간 6 『(국역)진연의궤』 2	한국고전번 역원, 2008	박소동	奎14499

(2) 악기조성청 의궤

악기조성청은 조선시대 제례나 연례를 위한 악기 제작을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로 악기를 만드는 과정과 소요된 물질 및 인력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제기악기도감의궤』가 있으며 모두 규장각 소장이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는 영조 22년(1744) 밤에 인정전에서 화재로 타버린 악기와 물품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전말을 기록한 것이며, 『사직악기조성청의궤』는 1804년(순조 4) 사직 악기고에 불이 나 다시 악기를 제작한 과정을 기록한

14) 奎14363, 奎14364, 奎14365, 奎14366, 가람 古642.4-J562j, 가람 古642.4-J562ja, 藏2-2859, 藏2-2860.

15) 奎14371, 奎14371, 奎 14373, 奎14516, 奎14943, 奎25027, 가람古642.4-562m, 藏2-2874.

16) 奎14376, 奎14379~14397, 奎14378, 奎14389, 奎14399, 奎14401, 奎14402, 奎14400, 가람古642.4-J562e, 藏2-2875, 궁내청306-32.

17) 奎14404, 奎14405, 奎14406, 奎14425, 가람古642.4-J562b, 藏2-2876, 藏2-2877.

18) 奎14428, 奎14432, 가람古642.4-J562a, 藏2-2880.

19) 奎14479~14496, 藏2-2869.

20) 奎14499~14515, 藏2-2867, 藏2-2871.

것이다. 최근 해제에서는 이 의례의 기록이 편중, 편경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1911년 중단되어 단절된 사직제례악의 맥을 잇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그 해제에서는 이전에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3>으로 간행된 영인본의 목차와 쪽수를 기록하여 자료의 연계활용도를 높였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는 경모궁제례를 새로 만들면서 여기에 쓸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제작에 관한 기록물이며, 이 중에는 『악학궤범』에서 찾을 수 없는 악기와 의물의 제작과 부분 명칭들을 담고 있어 오늘날 국악기 복원에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다. 1624년(인조 2)에 편찬된 『제기악기도감의궤』은 차관(差官)을 접연할 때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기록이다.

이러한 4건의 악기조성 관련 의례를 통해 인조대, 영조대, 정조대, 순조대 악기 제작 목적 및 제작 현황, 제작과정, 악기의 재료, 재료 조달 방법과 조달처, 악기 단가, 악기를 만드는 장인의 종류, 악기 제작자들의 임금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악기 제작과 장인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²¹⁾

〈표 9〉 규장각 소장 악기조성청의궤 영인·번역 현황

도서명	총서명	출판 년도	기타	규장각 도서번호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3	1987	장사훈 해제	奎14264
『역주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한국음악사료연구회 국역총서 3	2000	송방송 해제·번역 고방자 번역	
『사직악기조성청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3	1987	장사훈 해제	奎14266
『역주사직악기조성청의궤』	한국음악학학술총서 7	2008	김영희 번역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3	1987	장사훈 해제	奎14265
『역주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한국음악학학술총서 8	2009	김영희 번역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규장각자료총서	2004		奎13734
『제기악기도감의궤』	규장각자료총서	2002		

21) 송지원,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 『국악원논문집』 23집(국립국악원, 2011), 145~190쪽.

(3) 기타 의궤

음악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된 기타 의궤로는 제례, 즉위식 관련 의궤가 있다. 이들은 1990년대 <규장각자료총서>로 발간된 바가 있다. 『종묘의궤』는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책으로 규장각에는 숙종조(奎14220)와 순조조(奎14222) 2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일찍이 한국음악학계에서 관심을 가져 총서로 영인되었다. 그 해제(송혜진)에서 장서각의 8분을 포함하여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을 숙종조의 것으로 추정하였고, 장서각본은 규장각본의 초고로 보았다. 이 의궤의 성격이 『오례의』, 『춘관통고』, 『증보문헌비고』와 비슷하여 종묘의 악기편성을 『오례의』, 『악학궤범』과 비교한 결과, 임란이후 규모는 축소하였으나 역대의 전래를 잘 따르고 있음을 밝히는 등 『종묘의궤』 연구에 심도있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고전번역원에서도 의궤의 역주 사업을 진행하여 『고종대례의궤』, 『종묘의궤』,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 등을 번역해 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발간한 『고종대례의궤』도 자세한 해제와 깔끔한 영인으로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표 10> 규장각 소장 기타 음악관련 의궤의 영인·번역 현황

도서명	총서명	출판 년도	비고	규장각 도서번호
『종묘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9	1990	송혜진 해제	奎14220
『종묘의궤』	규장각자료총서	1997		
『종묘의궤』	한국고전번역원	2009	선종순 번역	
『사직서의궤』	규장각자료총서	1997		奎14229
『사직서의궤』	한국고전번역원	2012	오세욱· 김기빈 번역	
『경모궁의궤』	규장각자료총서	1996		奎13632
『경모궁의궤:교감풍정』	한국고전번역원	2013	오세욱· 박현순 번역	
『고종대례의궤』	규장각자료총서	2001		奎13488
	공연예술사료번역총서10-12	2012-2013	김종수 번역	

2) 악서

『악학궤범』은 주요한 악서로서 먼저 영인·번역되었으나 개인 문집류에 전하는 악서는 김종수·이숙희에 의해 『시악화성』이, 김종수에 의해 『악통』이, 윤호진에 의해 『악원고사』가 국립국악원 총서로 번역 출간되었고, 『악서고존』이 권태욱·박정련에 의해 영인·번역되었다.

『악학궤범』²²⁾은 판본 자체가 다양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인문학계에서 영인·번역이 이루어져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1933년 고전간행회의 태백산본(1610) 영인본을 비롯하여, 1966년 김근수가 광해군판과 영조판을 대조한 것이 있고, 일본에서 발견된 임란전판은 1968년 연세대 인문과학원에서, 197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였다. 장사훈의 『한국음악사』의 부록에는 광해군판 영인본이 있다.²³⁾ 최근 규장각에 기증된 ‘한은 162’는 1933년 고전간행회의 영인본 이어서 일찍이 간행된 것들은 다시 고문헌이 되어 소장되고 있다. 2000년에 『신역악학궤범』은 1610년(광해2) 광해군판을 대본으로 호사문고판²⁴⁾을 참고하여 역주하고 호사문고판을 영인한 것인데 번역과 해제의 완성도가 높다. 한편 북한에서는 1956년에 번역서가 나와 『국역악학궤범』(1979)보다 일찍 간행되었다.

『시악화성』(奎416)은 1989년 영인되었고, 1996년에 김종수, 이숙희에 의해 학술총서로 역주되었다. 해제(김종수)에 서명웅이 정조의 생각을 바탕으로 썼고, 『보만재총서』에 실린 「원음악(元音鑰)」을 통해 서명웅이 편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권1은 『동국문헌비고』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아악을 중심으로 악조, 악기배치 등을 『주례』 「대사악」과 주재육의 『악률전서』 「율려정의」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시악화성』은 조선사회의 음악적 이상을 알 수 있다고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였다.

22) 성종 때 최초 간행된 이래 1610년(광해군 2), 1655년(효종 6), 1743년(영조 19)에 복각되어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규장각이 소장한 악학궤범은 총 9권 3책으로 된 광해군판 2권(奎1807(1610년), 奎1854(1611년)), 1655년(효종 6)에 복각된 奎91, 奎1817, 奎1818, 奎11677가 있다.

23) 송방송, 『한겨레음악사전』(보고사, 2012).

24) 호사문고판은 이흥직 박사에 의해 발견되어 1686년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1977년 아세아문화사에서 발간되었다. 2011년 국립국악원에서 컬러판 영인본을 발간하였다.

『악통』(奎1468, 奎1505)은 1986년 해제에서 왕명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하였으나, 『홍재전서』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정조가 편찬한 것이며,²⁵⁾ 아악의 회복을 위해 중국이론을 도입한 것이다. 궁중음악의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아악에 관한 전적(典籍)으로 전통음악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된다. 『홍재전서』²⁶⁾는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번역되어 2008년 신역 간행하였다.²⁷⁾

『악원고사』(奎11503)는 1696년(숙종 22) 장악원정(掌樂院正)이었던 이세필(李世弼)이 편찬한 음악이론서로 당시의 종묘악장의 전례와 그밖에 음악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 등을 엮볼 수 있는 문헌이다. 국립국악원에서 1986년 영인하였고 번역에서는 영어와 일본어를 포함시켰다.

『악서고존』(奎5593)은 정약용(1762~1836)이 지은 음악이론서로서 『여유당전서』 4집에 전한다. 1986년 영인되었으나 한참 후인 2014년 번역되었다. 해제에서 『악서고존』의 판본 3종을 비교하였다.

25) 김종수, 「정조가 편찬한 악서 『악통』, 『문헌과 해석』 8(문헌과 해석사, 1999).

26) 『홍재전서』는 1799년 규장각에서 완성한 1차 편집본과 1801년에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의 저술을 더한 2차 편집본의 필사본으로 완성되었고, 이를 1814년에 간행하였다. 1차본은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규장각본은 장서각본과 함께 2, 3차본으로 본다. 현전하는 것으로는 1814년에 간행한 인본(印本) 184권 100책이 규장각도서로 6부가 있고, 서울대학교에 초집 2권, 2집 61권 등 모두 38책이 보관되어 있다.

27) 양홍렬·김홍영·백영빈·장재한·조순희·김성애·박현순, 『국역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3); 민족문화추진회, 『신역정조홍재전서』(전22권)(한국학술정보, 2008). 그밖에 태학사에서 1978년 영인한 『홍재전서』는 장서각본을 저본으로 하며 장서각이 소장한 홍재고 4책 등을 ‘補遺篇’이 추가하였다.

〈표 11〉 규장각 소장 악서의 영인·번역 현황

도서명	총서명	간행처	출판 년도	해제자 번역자	규장각 도서번호
『악학궤범』		고전간행회	1933		(1610) 奎貴1807 奎1854 奎1812 (1655) 奎91 奎1817 奎1818 奎11677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68	김지용	
		아세아문화사	1975		
	고전국역총서19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9 1980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6	국립국악원	1989	이혜구	
	한국음악학학술총서 5	국립국악원	2000	이혜구	
	한국고전심포지엄시리즈	진단학회	2001		
		국립국악원	2011		
	한국귀중문헌 영인 1	명문당	2011	김지용	
	북한학술총서2	민속원	2015	렴정권 권도희	
『시악화성』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2	국립국악원	1989	장사훈	奎416
	한국음악학학술총서 4	국립국악원	1996	김종수 이숙희	
『악통』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1	국립국악원	1986	장사훈	奎1468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	김종수 외	奎572
『악원고사』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1	국립국악원	1986	장사훈	奎11503
	한국음악학학술총서 6	국립국악원	2006	윤호진	
『악서고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1	국립국악원	1986	장사훈	奎5593
	규장각자료총서예술편 3	규장각	2007	송지원	
	민속원 아르케북스30	민속원	2014	권태욱 박정련	

3) 악보

규장각의 고악보 자료는 조선후기 『양금신보』(1610)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악보가 있다. 전례서나 의궤류가 다른 학계의 관심대상인 것과 달리 악보는 음악학계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며 국립국악원의 영인본이 압도적이다.

〈표 12〉 규장각 소장 고악보 영인 현황(국립국악원 간행)

도서명	총서명	출판 년도	해제자	규장각 도서번호
『증보고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7	1981	장사훈	古2610-2
『휘금가곡보』		1981	장사훈	古2610-1
『금보』		1981	장사훈	古2600-1
『원객유운』		1981	장사훈	가람古781.751-W49
『혹흥금보』		1981	장사훈	가람古781.751 H482
『양금신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14	1989	이동복	가람古貴780.951-Y17y
『구라철사금자보』		1989	장사훈	가람古787-Y55g
『협률대성』		1989	이동복	가람古781.751-H995
『현금동문유기』	한국음악학자료총서15	1984	장사훈	가람古781.751-Y53h
『유예지』		1984	장사훈	奎6565
『금가』	한국음악학자료총서31	1995	최현	가람古781.751-G337

고악보를 중심으로 초기 영인본 총서 발간을 이뤄간 〈한국음악학자료총서〉의 초기 고악보 해제는 장사훈, 이동복, 최현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로 악보를 해독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놓았는데 이를 테면, 1959년 영인본으로 간행된 바 있는 『양금신보』에서는 집시법, 조현법, 안현법, 합자법, 시가표시법, 역보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저자나 편찬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밝히거나 악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협률대성』은 영언전부(永言全部)에 실린 시조시가 거의 같은 『가곡원류』를 그 원본으로 하고 1876년(고종13년) 이후로 편찬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현금오음통론』에서는 서문 「휘금학문입론」을 통해 병술년에 편저되었고, 현금도의 조현법이 고법이 아님을 통해 한말 휘금에 능했던 윤용구가 저자임을 밝혔다.

해당 악보에 대한 연구 결과나 다른 악보와 비교한 것을 서술한 해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구라철사금자보』는 편찬자 이규경 외에 본문에서 ‘문명신’이 ‘악보를 講作’했다는 데에 대한 의문, 『유예지』와 다른 점을 언급했으며, 양금을 아악기와 동일시하면서 오랫동안 해독하지 못한 것을 1958년 「『구라철사금자보』의 해제와 현행 평시조와의 제문제」 논문 발표 이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여러 명의 금보를 모아놓은 『현금동문유기』는 『금합자보』와 『조성금

보』의 탄법과 지법, 합자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금가』의 해제에서는 『삼죽금보』, 『희유』, 『현금오음통론』의 〈삭대엽〉과 〈농낙편〉을 비교하였고 〈태평가〉가 없다는 음악적 특징을 밝혔다.

해제는 주로 이전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학술적 연구성적을 반영하였다. 이를 테면, 『양금신보』는 가곡이 북전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악보임을 서술하였다. 『구라철사금자보』에서는 『열하일기』, 『표암유고』의 기록과 대조하여 양금 유입시기를 늦어도 1762년로 추정하였고, 조부 이덕무의 영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현금동문유기』의 저자는 미상이나 서문을 쓴 사람과 친척 간이며 고악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음악의 사회사적인 의의를 부각시키는 해제를 볼 수 있다. 『현금동문유기』에 대하여 만·중·삭대엽이 모두 실려 있어 1620년 당시 삭대엽이 불리고 있었으며, 17세기 문인들의 거문고에 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자료로 보는가 하면, 『금가』는 19세기 가객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관현반주음악의 수요를 보여주는 악보라고 하였다.

4. 맺음말 : 제언과 전망

지금까지 규장각 소장 자료를 가운데 한국음악학 자료를 추려보고 이것들의 영인·번역 사업의 성과와 해제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음악학의 연구성과와 규장각 자료의 특성상 의궤·악서·악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안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이 영인·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 규장각과 연구자들의 노고로 의궤는 해제와 연구가 꽤 축적되어 있으나 고종대의 9개 연향 의궤 중 『고종무신진찬의궤』, 『고종계유진작의궤』, 『고종정축진찬의궤』, 『고종임진진찬의궤』는 아직 발간되지 못하였다. 진연 때마다 공연 주체별로 필요한 사항이 정리된 정보를 담은 흘기(笏記)도 의궤를 보완할 중요한 자료이다. 장서각에 소장된 흘기를 『정재무도흘기』²⁸⁾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바 있다. 규장각에도 고종대 흘기

들이 11건이나 있다. 『내진연홀기』와 같이 대한제국기에 함녕전에서 거행한 내진연의 의식 절차를 기록한 홀기는 의례로 남아있지 않은 궁중연향기록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표 13〉 규장각 소장 홀기 목록

서명	편찬시기	규장각 도서번호
강녕전익일왕세자야연홀기(康寧殿翌日王世子夜譚笏記)	간년미상	奎27009
강녕전진찬의(康寧殿進饌儀)	간년미상	奎27035, 奎27145
경운당야진찬홀기(慶運堂夜進饌笏記)	20세기 초	가람古915.1-G998f
경운당익일야연홀기(慶運堂翌日夜譚笏記)		가람古915.1-G998c
경운당익일화작홀기(慶運堂翌日夜譚笏記)		가람古915.1-G998d
운당재익일황태자야연홀기(慶運堂再翌日皇太子夜譚笏記)		가람古915.1-G998a
운당재익일황태자회작홀기(慶運堂再翌日皇太子會酌笏記)		가람古915.1-G998e
경운당진찬홀기(慶運堂進饌笏記)		가람古915.1-G998b
내진연홀기(內進宴笏記)	20세기 초	가람古915.1-N129a
내진연익일황태자야연홀기(內進宴翌日皇太子夜譚笏記)		가람古915.1-N129b
내진연익일황태자회작홀기(內進宴翌日皇太子會酌笏記)		가람古915.1-N129c
외진연홀기(外進宴笏記)		가람古915.1-Oe5a
야진연홀기(夜進宴笏記)		가람古915.1-Y11a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는 『종묘의궤속록』²⁹⁾을 간행한 바 있는데 규장각 소장 1741년(영조 17)과 1842년(헌종 8)의 『종묘의궤속록』(奎14221)과 다른 판본이므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1713년 청나라 성조(聖祖, 康熙帝) 어정서로 간행된 중국의 음악이론서 『어제율려정의(御製律呂正義)』³⁰⁾(奎 12710)는 1713년(강희 52)과 1746년(건륭 11)에 각각 간행된 중국의 음악이론서인 『어제율려정의』와 『어제율려정의속편』을 한데 묶어 필사한 것이다. 중국의 악

28) 국학진흥연구사업운영위원회 편, 『정재무도홀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9)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종묘의궤속록』, 한국학자료총서 45(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0) 奎中3197, 奎中3200, 奎中3206, 奎中4165.

1723년(雍正 원년) 윤록(允祿)이 편찬한 음악이론서인 『어제율려정의(御製律呂正義)』는 국립국악원 소장본(151~155)으로 영인되었다.

서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들어온 서양음악이론과 조선후기 악를을 살필 수 있는 책인데 아직 번역본이 없다.

고악보의 경우 악보 외의 문자 정보까지 온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구라철사금자보』는 이동복의 논문을 통해서 전문이 해석되었을 뿐 번역본이 간행된 바가 없다. 또한 『양금신보』, 『현금동문유기』 등의 고악보는 음악 관련 정보가 많음에도 악보 외의 내용은 연구로 적극 활용도지 못했다. 최근 악보의 편찬자와 편찬배경이나 음악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 바, 이에 대한 관심이 번역으로 이어진다면 악보가 보다 입체적이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태가 좋지 않은 고악보 영인본에 대해 재간행을 고려해보고, 영인·번역의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시켜야 한다. 한국음악학 자료의 주축으로 삼는 국립국악원 총서의 영인본은 발행한지 오래되어 그 상태가 조악한 것이 많으며 이미 번역된 자료라도 오역이 있으므로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게다가 다양한 시각의 간행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문의 건강함을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번역의 DB화는 색인집 없이도 원하는 단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규장각의 상당수 고문헌은 ‘디지털 원문보기’를 통해 볼 수 있는데,³¹⁾ 이같은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인쇄비용은 절감하고 자료의 접근성은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인·번역본 자료의 특성을 통해 본 한국음악학의 학문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음악학은 인문학적 보편성이라는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음악학은 인간의 사상과 표현, 삶의 추이를 연구하는 인문학의 영역인 동시에 음악이라는 예술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도 포괄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인문학의 기본이 되는 역사와 철학을 기본으로 한 후 그 토대 위에서 음악을 삶에 운용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구자

3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www.krpia.co.kr/>),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규장각(<http://kyujanggak.snu.ac.kr/>) 등에서 소장 고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료와 방법의 매체적 특성이 거의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한국음악학의 연구동향은 다학문적이며 학제간 연구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음악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연관된 참고자료가 많으면 연구의 폭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다량의 자료가 한번 출판되면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는 영인·번역을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성과가 충분히 반영된 자료를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물질이나 인력 낭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많은 인력이 번역할 수 있도록 국학 지원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를 간행할 때에 체계의 일원화 혹은 분업화된 중점 간행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 소장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학 분야별 연구와 교육, 영인과 번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경문사 편(1979), 『국조오례의』, 경문사.
- 고전간행회 편(1933), 『악학궤범』, 고전간행회.
- _____ (1960), 『고려사절요』, 동국문화사.
- 국립국악원 편(2006), 『(역주)악원고사』, 민속원.
- _____ (1980), 『진작의궤 무자·진찬의궤 기축』,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 국립국악원.
- _____ (1981), 『증보고금보·휘금가곡보·죽취금보·양금보(일사금보)·원객유운·흑홍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7, 국립국악원.
- _____ (1984) 『금보(고)·금보정선·양금보·현금동문유기·유예지·장금신보·서금·금보·서금보·양금곡보·양금주책』,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5, 국립국악원.
- _____ (1984), 『협률대성·양금신보·구라철사금자보·현금요음통론·영산회상·방산한씨금보·낭옹신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4, 국립국악원.
- _____ (1986), 『악원고사·악통·난계유고·악서고준』,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1, 국립국악원.
- _____ (1987),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사직악기조성청의궤·신축진찬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3, 국립국악원.
- _____ (1987), 『신축진연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4, 국립국악원.
- _____ (1989), 『진찬의궤 무신』, 한국음악학자료총서 6, 국립국악원.
- _____ (1989), 『시악화성』,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2, 국립국악원.
- _____ (1989), 『영조판악학궤범』,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6, 국립국악원.
- _____ (1990), 『삼국사기 악지·고려사 악지·증보문헌비고악고』,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7, 국립국악원.
- _____ (1990), 『종묘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9, 국립국악원.
- _____ (1992), 『진연의궤·수작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0, 국립국악원.
- _____ (1995), 『금학절요·금가·가곡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1, 국립국악원.

- _____ (2011), 『악학궤범(호사문고 소장본)』, 국립국악원.
- 국사편찬위원회(1968), 『조선왕조실록』 1~40, 국사편찬위원회.
- 국학진흥연구사업운영위원회 편(1944), 『정재무도홀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권태욱·박정련 역주(2014), 『악서고존』, 민속원 아르케박스 30, 민속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1994), 『원행을묘정리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1997), 『종묘의궤 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1997), 『사직서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1996), 『자경전진작정례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2001), 『고종대례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2004),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2001), 『대사례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2003~2005),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1~3, 규장각.
- _____ (2007), 『악서고존』, 규장각자료총서 예술편 3, 민속원.
- _____ (2018), 『규장각소장 음악자료와 한국음악사 연구사 검토』, 규장각.
- 김근수(1966), 『교본악학궤범』 (등사본).
- 김영봉(1992), 『조선조 의궤에 나타난 연례악의 변천-진연·진찬·진작 의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역주(2008), 『(역주)사직악기조성청의궤』, 국립국악원.
- 김종권 역(1982), 『(신역)삼국사기』 1-6, 서문당.
- 김종서 등(1959), 『고려사절요』, 명문당.
- _____ (1972), 『고려사절요』, 아세아문화사.
- 김종수(1999), 『정조가 편찬한 악서 『악통』』, 『문헌과 해석』, 문헌과해석사.
- _____ 외(2007), 『국역순조기축전찬의궤』 권수·권1~3·부편, 한국음악사료연구회국역총서 6~8, 민속원.
- _____ 역주(2017),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민속원.
- 김중수·이숙희 역주(1996), 『시악화성』, 한국음악학술총서 4, 국립국악원.
- 김지용 해설(1968), 『악학궤범』, 인문과학자료총서 2, 연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렴정권 역주, 권도희 해제(2015), 『(북역)악학궤범』, 북한학술총서 2, 민속원.

민족문화추진회(1979~1980), 『(국역)악학궤범』1~2, 고전국역총서 199, 민족문화추진회.

_____ (1977), 『삼국사기』, 민족문화추진회.

_____ (2004), 『(신편)고려사절요』 上·中·下, 신서원.

_____ (2008), 『(신역)정조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_____ (1998~2003), 『(국역)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박소동 역(2005), 『국역진연의궤1: 고종 임인년』, 조선왕조의궤총간 3, 한국고전번역원.

_____ (2008), 『국역진연의궤2: 고종 임인년』, 조선왕조의궤총간 6, 한국고전번역원.

법제처 편(1981~1982), 『국조오례의』 1~5, 법제처.

북한사회과학원고전연구소 편(2008), 『(북역)고려사』, 이름출판사.

송방송(2008), 『의궤속의 우리 춤과 음악을 찾아서』, 보고서.

_____ (2012), 『한겨레음악사전』, 보고서.

송방송·고방자 역(1998), 『(국역)영조조갑자진연의궤』, 민속원.

_____ 외(2000), 『(국역)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민속원.

송방송·박정련 공저(2001), 『(국역)숙종조기해진연의궤』, 민속원.

송지원(2011),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서인화 주(2009), 『(역주)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국립국악원.

수원시 편(1996),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 수원시.

여운필(2011), 『(역주)고려사 악지』, 월인.

오세옥·김기빈 옮김(2012), 『사직서의궤』, 한국고전번역원.

유의양 편저(1975~1977), 『춘관통고』 上·中·下, 성균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혜구 역주(2000), 『(신역)악학궤범』, 한국음악학술총서 5, 국립국악원.

인남순 역주(2008), 『(국역)고종정해진찬의궤』, 보고서.

장사훈(1986), 『한국음악사』 부록 영인본, 세광음악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고전연구실 편(1958~1959), 『삼국사기』 上·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 진단학회 편(2001), 『악학궤범』, 한국고전심포지엄시리즈 3, 일조각.
- 최호 역해(1994), 『(신역)삼국사기』, 홍신문화사.
- 한국고전번역원(2009), 선종순 옮김, 『종묘의궤』 1~2, 김영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진찬의궤 정해(영인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한국예술학과 음악사료강독회 역주(2000~2002), 『고종신축진연의궤』 권1~3, 한국
공연예술사료번역총서 2~4, 한국예술종합학교.
- _____ (2006), 『(국역)헌종무신진찬의궤』 권3, 한국공
연예술사료번역총서 8, 한국예술종합학교.
- _____ (2012~2013), 『고종대례의궤 上·下』, 공연예
술사료번역총서 10,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예술학과 음악사료강독회 역주, 김종수 외(2004), 『(국역)헌종무신진찬의궤』 권
수·권1, 한국공연예술사료번역총서 6, 한국예술종합학교.
- _____ (2005), 『(국역)헌종무신진찬의궤』 권
2, 한국공연예술사료번역총서 7,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의강 책임번역(2006), 『(국역)순조무자진작의궤』, 세계
민족무용연구소 학술총서 3, 보고서.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3), 『고려사절요』, 아세아문화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11~2016), 『종묘의궤속록』 1~6,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6~1998), 『조선왕조실록음악기사자료집』 1~8, 민속원.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of Photoprint and Translation and the Tendency of Annotation about Korean Musicology Materials housed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im, Eun-Ji

(Master's student,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hotoprint·translation·bibliographic explanation about Korean musicology of the massive materials housed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base of Korean Musicology study has expanded through publishing of photoprint and translation of Korean musicology materials, trying to sharing resources of Korean Musicology. Therefore it needs to be reviewed in terms of securing the basic research materials separately from the studies on Korean Musicology.

In the first period(1933~1959) which was an exploring era of resources and primary musical materials were photoprinted as well as related studies materials. In the second period(1960~1979) which was paving the way of Korean musicology, photoprint of the series of old music scores tried in priority. The third period(1980~1999) was when the materials were established. For that the National Gukak Center published the series of the photoprint of Korean musicology materials in the 1980s and the series of the translation in the 1990s thereby many Korean Musicology materials have been in earnest supplied, which are more intensive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nd advanced in the studies. In the fourth(2000~) period that 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rough building up the

results, existing data are update many academic societies publish the series of translated korean musical historic materials and non-musicology materials are becoming more importance, especially deepening study on *Uigwae*.

The annotations in the photoprinted and translated books or the website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ive a brief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material to star with. However they are getting closely connected with research trends, suggesting a research subject, also that is the result in itself. Looking into *Uigwae*, old score, music theory book, these days *Uigwae* related royal court banquet are most active published as photoprint and translation.

From now on it's necessary to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work and the blind spot of photoprint and translation: resource materials not yet to photoprint and translate, already published version in lower-quality, different version and the text information of the old music scores. Also we can expand active-using digitalized services to save trouble of printing or index of materials.

【Keyword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Photoprint, Translation, Annotation, *Uigwae*, Music books, Old music scores